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2년도 표어 ⊗

성령이여 교통케 하소서 (고후13:13)

⊗ 행동지침 ⊗

- 1. 내실있는 교회 되어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생활을 실천한다.
- 2. 성숙한 교회 되어 이웃과 세계교회를 섬기며 화평과 연합을 도모한다.
- 3. 책임있는 교회 되어 지역사회와 민족 앞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한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558-2107 www.seoulchurch.or.kr

2002년도 하반기 열린 교회 프로그램 확정

-9월 첫주에 개강-

우리 교회가 성도와 이웃 주민들을 위해 열린 교회 프로그램의 2002년도 하반기 양의 계획이 당회를 통과하여 확정되었다.

매년 전후반기 각 10주간 매주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평소 듣고 싶었던 신앙강좌 및 교양강좌와 함께 건강, 법률, 금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준비되는 우리교회의 열린 교회 프로그램은 좋은 강좌를 듣기 원하는 성도와 이웃 주민들에게 훌륭한 재교

육의 장으로 자리잡아왔다. 금번 학기 역시 다양하고도 좋은 강좌로 준비되었으며 오는 9월 첫 주 모두 개강하게 된다. 수강료는 각 프로그램 당 10,000원이며 자유롭게 선택하여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단 성경학교는 과목당 10,000원이다. 자세한 프로그램은 다음의 표를 참조하면 되며 접수는 사무국에서 한다.

<제4학기 서울 주부대학>

<제5학기 살롬 경로대학>

- † 개강: 9월3일(화) 오전 10시
† 장소: 서울교회 602호
† 기간: 9.3~11.5(10주간)
- † 교육시간
1교사: 경건회(10:00 - 10:30)
2교사: 교양강좌(10:30 - 12:00)
3교사: 친교(점심식사)(12:00 - 13:00)
4교사: 특별활동(13:00 - 14:00)

- † 개강: 9월 5일(목) 10:30
† 장소: 웨스트민스터 홀(101호)
† 기간: 9.5~11.11(10주간)
- † 교육시간
1교사: 경건회 찬양(10:30 - 11:00)
2교사: 교양강좌(11:00 - 12:00)
3교사: 친교(점심시간)(12:00 - 13:00)
4교사: 특별활동 (13:00 - 14:00)

일자	강의제목	강사	특별활동
9.3	나의 BMI(체질량) 지수는?	홍순복 사모(미생물학 박사)	
9.10	가족관계의 진단	이현숙 집사	
9.17	가족 치료	이현숙 집사	
9.24	취미활동 (인터넷)	김시환 집사	영어교실
10.1	자연과 수석	이완형 장로(한양여대 교수)	꽃꽂이 교실
10.8	취미활동 (인터넷)	김시환 집사	종이 접기 교실
10.15	청소년의 비행	조해경 박사(명지대 강사)	
10.22	아동의 정신건강	이은옥 권사	
10.29	만성질환과 영양관리 (1.당뇨병)	라미용 집사	
11.5	만성질환과 영양관리 (2.고지혈증)	라미용 집사	

일자	강의 제목	강사	특별활동
9.5	하나님과 함께 하는 노인의 삶	이규정 목사	
9.12	치매와 노인건강	김범생 박사(여의도 성모병원 신경내과 과장)	
9.19	치료 레크레이션	백순명 국장(사법연수원 인강의 대리 사무국장)	
9.26	생활 원예	이재윤 집사	성경교실
10.10	한방과 노인건강	김재안 원장 (에벤에셀 한의원 원장)	컴퓨터 교실
10.17	건강 체조	조성재 선생 (삼성 노블카운티 물리치료사)	에어로빅 교실
10.24	영화상영	비디오	종이접기 교실
10.31	기독교 유적 순례	양화진 외인 묘지	
11.4	나의 하나님	김선미 권사 · 이덕민 집사	
11.11	한국 교회사	이민열 교수	

<교구일꾼 양성반(LTC)>

- † 개강: 9월 8일(주) 오후 3:30
† 장소: 502호
† 기간: 9.8~ 11.10(10주간)

일자	교과목	강사
9.8	기도의 능력	오정식 목사
9.15	참된 예배	이성득 목사
9.22	성령의 은사	이용식 목사
9.29	교회의 사명	윤영국 목사
10.6	전도방법	이규정 목사
10.13	상담방법	이용식 목사
10.20	영적 리더십	이태훈 전도사
10.27	성경공부 인도법	김운호 목사
11.3	이단연구	한상은 목사
11.10	다락방 운영방법	지혜영 전도사

금주의 성구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와 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출 15:26)
He said, "If you listen carefully to the voice of the Lord your God and do what is right in his eyes, if you pay attention to his commands and keep all his decrees, I will not bring on you any of the diseases I brought on the Egyptian, for I am the Lord, who heal you.

제22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준비 시작하다

-교계 신문 광고 및 발송준비시작-

오는 9월2일 개강하는 제22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준비가 한창이다. '신앙과 애국'을 주제로 총 10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금번 세미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독교보(통합)와 기독교신문(합동), 기독교 타임즈(감리교)등 교계 주요 신문사의 금주 신문에 광고를 게재할 예정이며 아울러 안내 팸플릿과 봉투를 인쇄하여 발송할 예정이다.

지금은 정치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운 조국에 무엇보다도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그에 바탕 한 진정한 애국이 필요한 시기이다. 10여 년 간 우리에게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한 기회와 여건을 계속하여 허락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세미나도 차고 넘치는 은혜 속에 한국교회의 갱신을 열망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모여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방법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한다. 이번 강사진에는 대통령 후보들이 초청된다. 또한 세미나를 준비하는 많은 봉사의 손길이 필요하기도 하다. 함께 모든 순서를 준비하며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성도는 사무국에 신청을 하면 된다.

장로 수련회

'성령이여 교통케 하소서' 를 주제로

장로들의 영적 갱신과 교회 성장의 비전을 토론할 장로수련회가 육군 제23사단 교육관에서 8월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열린다.

본 교회 장로는 부부 동반하여 참석하여야 하며 3일간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는 토의와 기도를 하며 교회성장을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된다.

이시아서 강해

불경전한 자에 대한 책망

(이사야 66장 1 ~ 4절)



이중운 목사

포로에서 막 돌아오는 이스라엘은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예배를 재확립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결 정신이 결여된 사람이 이 같은 계획을 세우는 것을 책망하시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히 여기신다는 경고를 하십니다.

1. 누가 경건치 못한 사람인가

가난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상한 마음이 없이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 경건치 못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1)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집에 거하지 않으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1절).

하나님을 모실만한 집은 이 땅 위에 없습니다. 그의 손이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자이시므로(2절) 사람이 지은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아닙니다.

(2)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가난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이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2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마 5:3).

마음이 가난한 자란 영적 파산자(spiritual bankruptcy), 곧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 가운데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는 영적 파산자라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자비와 권능의 손을 내미십니다.

2. 하나님은 통회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거하신다

(1) 통회

통회는 범죄 한 손과 발을 씻듯, 범죄 한 눈을 씻듯 범한 죄를 아프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통회는 결단성 있는 행동이 요청되며 이는 뜻을 정한 행동입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 잘못을 끊지 않는 자는 지혜 없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설을 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자와 같습니다.

참 신자는 신앙과 덕을 위한 결단하며 욕심의 충동대로 방종하지 않습니다. 욕망을 따라 살고, 욕심의 지배를 받는 것은 짐승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통회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 값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드려야 합니다. 교회에서 허물이 발견되면 권징을 합니다. 교회가 행하는 권징은 권세를 사용하는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수종드는 봉사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권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범죄자를 권징하라고 하셨으므로(마 18:15-18, 고전 5, 요이 1:8-11) 교회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범죄자가 교회 권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잠 10:17, 13:18).

불의한 자는 예상외의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일반적으로 벌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이 행한 대로 슬픔과 재난을 주십니다. 이 같은 슬픔과 재난은 불의한 자가 예상치 않았던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항상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위기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도 죄가 가져올 결과 사태는 예측하지 못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책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잠 29:1).

통회하는 사람은 회개할 때 이 세상 어떤 것에 있어서는 손해 보기를 각오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범죄 한 손발을 씻고, 눈을 씻을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더러워진 범죄 한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천대와 멸시를 당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눅 15:19)라고 말하며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눅 23:41).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가 이렇게 말할 때 비로소 그에게 천국이 임했습니다.

(2) 통회하는 사람이 받는 복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2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물질과 권세와 온 세상과 쾌락과 심지어는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며 그 분을 마음에 모심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옴은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므로 자녀들이 갑자기 죽을 때에도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욥 1:21)라고 했습니다.

3. 불의한 자에 대한 책망

(1) 하나님의 증오의 대상(3-4절).

① 불성실

수송아지와 어린양과 드리는 예물이 가장한 경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들은 불성실한 자세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몸은 하나님의 집에 와있으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습니다. 가난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이 소를 잡아 제물을 드리는 것은 살인행위에 불과합니다.

개의 목을 꺾는 것은 혐오의 행위이므로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신 23:18, 행 15:20). 이와 같이 가증한 제물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의 목을 꺾는 것처럼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행위입니다.

이들이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같습니다. 예물은 소제를 말하는 것인데 돼지의 피는 혐오의 대상입니다.

또한 이들이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제와 마찬가지로 분향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분향하였고 이는 가증한 것을 기뻐한 것이므로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같습니다.

② 부주의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4절).

저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나 그 음성엔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무관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한 사람들은 부주의로 인해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합당한 응답을 하지 못합니다.

③ 고집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4절).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선택한 자들을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④ 방종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4절).

하나님의 임계와 불꽃같은 눈을 의식하면서도 복종하지 않고 제 길로 가므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2)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을 준엄하게 책망하신다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4절).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에게 죄 값을 풀으시며 두려움을 갖게 하십니다. 저들은 형식적 제사를 드리나 실제로는 우상숭배와 같은 일을 행하는 유혹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으로 인하여 결국 무서운 일이 임하게 됩니다.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4절).

불의한 자는 예상외의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일반적으로 벌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이 행한 대로 슬픔과 재난을 주십니다. 이 같은 슬픔과 재난은 불의한 자가 예상치 않았던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항상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위기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도 죄가 가져올 결과 사태는 예측하지 못합니다.

사랑하신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불성실과 부주의와 고집과 방종의 모든 악한 것을 버리고 가난한 마음과, 무엇보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와 그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은 크로아티아에서 대학생 선교집회(Mission Korea)의 강사로 한국에 방문하신 피터 쿠즈미크(Peter Kuzmic)목사님이 지난주 일 우리교회 찬양예배 시 설교한 내용의 요약이다.

쿠즈미크 목사님은 세계복음주의협의회 WFF(World Evangelical Fellowship)와 로진위원회의 신학위원장을 지낸바 있고, 지금은 1년 중 6개월은 크로아티아에서 사역하시고, 6개월은 미국 보스톤의 고든 칼웰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강의하십니다.

기독교의 3단계 (고린도후서 5:14~21)

고린도후서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선교사에 의해 기록된 책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위임되었고,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선교사였거나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대적자였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원수였던 그가 복음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펄박자가 사도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은 바울의 삶을 종합하고 선교에 대한 그의 비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의 핵심 단어는 '화해'입니다. '화해'는 바울 신학의 중심 개념이며 그의 모든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그는 인간의 부패함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정립된 것과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 하였고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의 일을 이루시며 우리 또한 화목의 사역을 해야 합니다. 오늘 농촌전도대와 동골단기선교로 파송되어 가는 사람들도 바로 이 화목의



사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화목의 사신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3 단계가 있습니다.

I.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Christ for us)

사람은 모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종교적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념이나 철학을 숭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그들의 하나님은 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가난한 자의 외침소리도 듣지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들으시고 보시며 모든 것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사상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본문에는 '위하여'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겻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II.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Christ in us)

역사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은 경험적인 것입니다. 우리 소망의 기초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요, 경험을 통해 지금도 우리 안에 실제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III.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 (Christ through us)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일만으로 만족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우리는 성숙의 단계에 이르러야 하며 그것은 섬김의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섬김의 도리를 다하고 이웃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구경만 하면 안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의 놀라운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리: 허숙(편집부)

The 5th Asia Church Leaders Conference On Evangelism

ALCOE V 참가국과 각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 · 각 선교 · 전도회 연결 상황(II)



팔라우

참석인원 : 3명

연결현황 : 아브라함 남선교회

458km² 면적의 화산지대 산호섬으로 농사 어업 관광이 국가 경제의 중심이 되고 미국의 원조에 큰 의지를 하고 있으며 팔라우어와 영어를 사용한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고 카톨릭과 복음주의 교회가 주류를 이룬다. 개신교 25.4%, 카톨릭 39.7%, 이단종파 3%, 토착 이단종파 모데크네는 28.1%이다.

<기도제목>

1.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과 기독교 그리고 마술을 혼합한 토착 이단 종파인 모데크네를 추종한다. 오래된 정령숭배의 영향력 또한 강하다. 이들이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2. 복음에 대한 방해가 사라지도록(폐쇄된 문화, 강한 전통주의, 막대한 음주문화 등)
3. 팔라우어로 성경이 번역되도록



파키스탄

참석인원 : 5명

연결현황 : 도르가 여전도회

880,000km² 면적의 반 사막의 회교 국가로 인도와 끊임없는 분쟁과 아프가니스탄 내전으로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 회교 96.7%로 극단적인 회교도의 증가세. 기독교는 1.7%로 매우 미약하고 성장률 역시 3.9%로 미약한 상태이다.

<기도제목>

1. 파키스탄의 정치 경제 사회적 불안이 해결되도록
2. 회교도에 의한 기독교의 탄압이 중지되고 자유로운 선교의 길이 열리도록
3. 미약한 현지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4. 올바른 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되도록
5. 현지 선교사들을 위하여

동으로 무장 대치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종교적으로 카톨릭이 우세하다.

<기도제목>

1. 개혁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2. 체계적인 제자훈련이 이루어져 신앙의 뿌리를 내리도록
3. 문서선교의 활성화를 위해



방글라데시

참석인원 : 5명

연결현황 : 루디아 여전도회

144,000km² 면적의 인도 동쪽 삼각주와 일대 저지대로 구성된 회교 국가. 강우량이 많고 태풍이 수시로 침습하여 홍수가 잦다. 인구과잉 홍수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중의 하나이다. 회교 87%, 기독교 0.44% 성장률 3.6%로 매우 낮다.

<기도제목>

1. 회교도의 방해와 탄압이 그치고 복음이 선포되도록
2.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3. 성경을 비롯한 기독교 문서가 원활히 발간되도록
4. 높은 문맹률을 낮추도록



중국

참석인원 : 2명

연결현황 : 마리아여전도회

9,573,000km² 면적의 세계에서 3 번째로 큰 나라이며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 중국 공산당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종교활동은 많은 탄압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으로 탈출하는 북한인 탈북자 문제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탈북자를 인정하지 않고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비인도적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 중국 국민은 약 30% 가량이 불교, 도교, 유교를 믿고 있으며 기독교는 6.1%(개혁교회 5.1% 성장률 7.1%)로 모택동 사후 중국의 개방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이지만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다.

<기도제목>

1. 중국 정부의 종교의 자유인정으로 자유로운 선교활동이 보장되도록
2. 중국 교회의 핵심인 가정교회의 안정을 위하여
3. 교회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4. 중국 정부의 올바른 탈북자 문제 해결과 그들의 인권을 위해



필리핀

참석인원 : 5명

연결현황 : 뱌뱌여전도회

300,000km² 면적의 7,250개 섬으로 구성된 섬나라. 남아시아에 전체적으로 만연한 부정과 부패 등으로 국가가 황폐해지고 있다. 일부지역에서 극단 회교도의 난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롬15:21)

서울교회 농촌 전도대 여러분께...

몽골에서 온 편지

사랑하는 이종운 목사님과 서울교회 성도님들에게

"센 베희차도(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슨 말로 그 감사함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베풀어주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잠자던 영혼이 깨고 깨울렀던 심령이 더 분발하며 열심이 생기고 힘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는 자가 복되며 기쁘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통해 다시한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목사님 삶 전체가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랬듯이 저희도 베풀며 봉사하는 삶을 조금이나마 실천하며 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고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큰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힘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교회 이종운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평안히 가세요...

2002.8.9
목양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희 몽골단기선교단은 여러분의 기도와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울란바타르 공항에 무사히 도착하여 숙소에서 여장을 풀고 아멘교회 양재철 목사님께 몽골에서 잠시 생활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전달받은 뒤 첫날밤을 보냈습니다.

둘째날 9시 30분 경에 선교지 순방을 나섰습니다. 첫 장소는 1995년 9월경에 개교한 몽골유니온신학대학으로 한국기독교교단이 세운 유일한 초교파적인 신학교로 작년 기준으로 학생수가 103명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의 신학교이지만 한인교회와 교단의 하나됨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주님의 귀한 배움의 장소입니다. 또한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학교인 MK School(Missionary Kid's School)은 선교사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4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또 울란바타르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현재 벅끄뚜게르(제일)교회 담임목사인 유순재 목사님이 10년 전에 한국어 학원으로 출발, 현재는 종합대학으로 승격, 정부 지원과 한국 기독교 교단에서 자금을 지원 받아 장차 3000여명 규모로 성장할 예정입니다. 유순재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 선교라는 것이 결코 고난과 역경의 길이 아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상명령이며 이것이 우리는 결단과 순진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함을 절실하게 느꼈던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2박 3일간 아멘교회의 전교인 수련회에 참가하여 의료 및 미용봉사, 찬양집회 및 워십 대성, 마임, 깃발찬양 등을 통해 우리가 한국에서 준비하는 동안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전할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있을 1박 2일간의 갈보리교회 전교인 수련회에서도 주님의 귀하신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려 합니다.

주님이 명하신 이 땅 몽골에 있는 저희 단기선교단원들은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따라 안전하고도 기쁜 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모든 일정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요섭(청년부)

초청으로 내한, 소년소녀 가장 돕기 공연을 가졌고, 그 찬양과 영성을 인정한 기독교방송(C.B.S)의 공식 초청을 1999년에 받아 다시 내한, 세종문화회관을 비롯한 전국 9개 대도시 공연을 가진 바 있다.

이번 공연의 레파토리는 노예였을 적 **한을 담은** "We shall overcome(우리는 극복하리라)", "Oh, Freedom(오 자유)", "My Everything(나의 전부)", "Oh Happy Day(오 기쁜 날!)" 등 주옥같은 곡들이다. (편집부)



Liberty Zion Choir는 . . .

오는 8월18일 서울교회에서 공연할 흑인영가단 Liberty Zion Choir는 1995년 흑인들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하고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결성된 영감 깊은 성가단으로 미국내에서도 상당히 알려져있다.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은 백악관에서 10분 거리인 아나콘스티시아 애비뉴(Anaconsticia Avenue)의 마틴 루터 킹 드라이브(Martin Luther King Drive)다. 이들은 워싱턴의 빈민지역에서 유일하게 활동하는 선교단체인 워싱턴 평화 나눔 공동체(대표 최상진 목사)와 연관하여 가난한 자신들의 빈민지역을 살만한 곳으로 탈바꿈시키고자 꽃심기, 건물 페인트칠하기, 자녀 장학금 마련,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나눔의 집 마련 등, 불꽃같은 신앙으로 새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

Liberty Zion Choir는 지난 1997년 한국직장인 선교회

모음과 나눔의 장, 많이 이용해 주세요

우리교회는 설립초기인 92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모음과 나눔의 장'이나 '열린 바자'의 형태로 성도 혹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일정 기간 바자회를 열어왔다. 그런데 대치동 예배당으로 온 후로 '모음과 나눔의 장'을 본격화하여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 1부 예배가 끝난 후 상설하고 있다.

특히 지금 운영되고 있는 '모음과 나눔의 장'은 목회자 세미나 때마다 지방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이 단골 고객이다. 목사님들은 세미나가 끝나면 반드시 이곳에 들러 알뜰 소풍을 하시는데 구매하신 물건은 전도용으로, 또 구제용으로 요긴하게 사용하신다고 한다.

활용 가능하나 쓰지 않는 물건, 다른 사람에게 요긴하게 쓰임 받을 물건을 모으는 일은 자원을 아끼고 재활용하므로 환경보전 운동에 적게나마 동참할 수 있어 의미 있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전도나 이웃을 구제하는 목적에 사용된다.

현재는 모았던 물건들이 그간 많이 빠져서 팔 물건이 빈곤한 상태이다. 이제 9월에 시작될 22기 목회자 세미나를 앞두고 '모음과 나눔의 장'이 다시 성황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담당 권사회는 이에 앞서 '모은 일에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 수집 물품은 가전제품, 가구, 의류등 종목에 제한이 없으며 의류인 경우에는 깨끗이 손질하여 가져오면 상품가치가 더 높아질 뿐 아니라 정리하는 일이 한결 수월하다.

편집부

등정

- 이종운목사는 13일(화) 한국로잔 위원회 임원회를 소집한다.
- 홍의만 선교사는 다발성 골수암의 진단을 받고 현재 뉴욕병원에서 치료중이다.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문형숙선교사는 아시아 로잔 대회참여자일시 귀국했다.
- 이전개업: 이동권, 박경자 집사(2교구) (주)엔비오 542-4102-3
- 이전개업: 하인선 집사, 남태순 권사(3교구) 한일신경외과 031-451-1778-9
- 이사: 이동권, 박경자 집사(2교구)삼성동 해청A 21-301. 3443-8790
- 득남: 9교구 이대원 집사, 박유신 집사 7월14일 득남

☞ **금주의 식사제공: 양옥자권사·하범수집사 (정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몽골 단기선교팀의 승리와 아시아 로잔대회 성공을 위하여
2. 선교사들의 건강과 영력을 위하여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일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